

스웨덴전 필승 전략 포백이나 스리백이나

라인업 비공개...장현수·김영권은 고정
박주호·김민우·윤영선 수비 호흡 예고

“포지션은 말씀드릴 수 없다. 지금까지 힘들게 준비했던 부분이라 경기장에 서만 보여줄 수 있다. 23명의 선수 중에서 11명은 무조건 나온다는 것만 말하겠다.”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은 2018 러시아월드컵 베이스캠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입성 후 처음 담금질했던 13일(현지 시간) 스웨덴과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수비 형태를 스리백과 포백 중 어떤 걸 가동할지를 묻는 말에 ‘동문서답’ 식 대답을 했다.

누가 나오더라도 최종 엔트리 23명 가운데 베스트 11이 꾸려지는 건 분명하다.

신태용 감독으로서는 지금까지 월드컵 첫 상대인 스웨덴에 전력 노출을 꺼려 전술 훈련을 비공개로 진행했던 만큼 취약 포지션인 수비진의 라인업을 공개하지 않는 건 당연지사다.

오스트리아 전지훈련 마지막 날에 진행했던 세네갈과 평가전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취재진에 ‘포메이션(전형)에 대해선 질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태용 감독이 조별 리그 세 경기 중 모든 걸 걸겠다고 밝힌 스웨덴전에 포백

◇ 한국 조별경기일정

18일 - 1차전
스웨덴 vs 한국 (피파랭킹 24위) (57위)
오후 9시 - 니즈니노브고로드 스타디움
24일 - 2차전
한국 vs 멕시코 (57위) (15위)
오전 0시 - 로스토프 아레나
27일 - 3차전
한국 vs 독일 (57위) (1위)
오후 11시 - 카잔 아레나

또는 스리백 중 어떤 수비 전술을 들고 나올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하지만 수비진의 선발로 장현수(27·FC도쿄)와 김영권(28·광저우) 듀오의 선발 출격은 유력해 보인다.

장현수는 신태용 감독이 작년 7월 사망으로 취임한 후 최다 출전시간을 자랑한다. 신태용 감독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는 증거다.

김영권은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탈락한 불박이 중앙수비수 김민재(26·전북)의 공백을 메울 대체자로 떠올랐다. 장현수와 김영권은 오스트리아 전후



공백기 훈련 13일 오후(현지시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베이스캠프훈련장인 상트페테르부르크 로모노소프 스파르타크 스타디움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간 치른 7일 볼리비아전과 11일 세네갈전 등 두 차례 평가전에서 모두 포백 수비라인의 중앙수비수 파트너로 선발 출전했다.

신 감독이 “두 차례 평가전부터 수비진을 고정해 월드컵 본선까지 가져가겠다”고 밝힌 데는 둘에 대한 믿음이 자리

하고 있다. 측면 수비수로는 왼쪽에 박주호(31·울산) 또는 김민우(28·상주)가 나설 수 있고, 오른쪽에는 부상에서 회복한 이윤(32·전북)이 고정적이다. 스리백 상황에서도 장현수-김영권 듀오의 역할은 크다.

스웨덴이 4-4-2 전형을 쓰는 점을 고려해 스리백 카드를 들고 나오더라도 장현수와 김영권이 두 자리를 맡고, 남은 한 자리는 윤영선(30·성남) 등이 맡을 공산이 크다.

장현수는 세네갈과 비공개 평가전 직후 신태용 감독이 ‘상대의 공세를 잘 막

아냈다’고 칭찬한 것과 관련해 “(김)영권 형과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수비 전체가 잘해줬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한다”면서 “미팅을 통해 같은 마음으로 다 같이 경기에 나갔고, 경기할 때도 호흡 부분 등을 많이 생각하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을 하루 앞둔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로모노소프 스파르타크 경기장에서 열린 팬 공개훈련에서 이승우가 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승우, 데뷔 눈앞...출전하면 최연소 4위

당당한 20세 새내기 이승우(엘라스베로나)의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데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승우는 오는 18일(한국시간) 밤 9시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스웨덴과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선발 출전이 유력하다.

지난달 14일 대표팀 소집명단 28명에 들었을 때만 해도 최종 엔트리 23명에 포함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던 이승우가 당당히 월드컵에 나설 베스트 11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승우는 경쟁한 선배들과 경쟁 관문을 통과했다.

소집 대상 선수 28명 가운데 베테랑 공격수 이근호(강원), 미드필더 권창훈(디즈)이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어 26명 가운데 3명의 탈락자를 추리는 과정에서 이승우는 이창용(크리스탈 팰리스)과 김진수(전북), 권경원(현진)을 제치고 최종 엔트리 23명에 이름을 올렸다.

A매치 데뷔전이었던 지난달 28일 온두라스와 평가전에서는 손흥민(토트넘)의 선제 결승 골을 어시스트하는 등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신태용 감독의 눈도장을 받았다.

이승우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 전후 기간 치른 7일 볼리비아, 11일 세네갈과 평가전에서는 두 경기 연속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선발 출장했다.

두 경기에는 월드컵 예비 베스트 11이 출전했기 때문에 이승우는 이번이 없는 한 스웨덴과 1차전에서 왼쪽 날개로 선발 출격할 전망이다.

1998년 1월 6일생인 이승우가 월드컵 무대에 데뷔한다면 20세 6개월로 역대 네 번째 최연소 출전 선수로 이름을 올린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19세 2개월의 최연소로 출전한 이동국(전북)과 같은 대회의 고종수(당시 19세 8개월)대전 시타준 감독,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때 김주성(당시 20세 5개월) 전 축구협회 심판운영실장의 뒤를 잇는 것이다.

이승우는 월드컵 데뷔를 앞둔 소감을 묻는 말에 “아직 데뷔한다 안 한다를 말할 수는 없지만 (스웨덴과 경기에 뛰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면서 “긴장감 보다는 기대감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웨덴 선수들이 워낙 신체 조건이 좋기 때문에 빠른 역습을 시도하고, 상대가 갖춰지지 않았을 때를 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스웨덴전에 뛰) 기회가 주어진다 팀이 도와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4할’ 안치홍·양의지 꿈의 타율 도전

2명 이상 동반 64경기 타율 4할 유지 KBO리그 최초

안치홍(28·KIA 타이거즈)이 타율 4할(0.404)을 유지했고, 양의지(31·두산 베어스)는 타율 4할(0.400)에 복귀했다. 2018 KBO리그는 정규시즌 46%를 치른 13일 현재, 두 명의 4할 타자를 보유하고 있다. 두 명이상이 이렇게 오래 타율 4할을 유지하는 건, KBO리그 역사상 최조다.

1987년 고 장효조(당시 삼성 라이온즈)와 김용철(당시 롯데 자이언츠)이 그해 6월 28일까지 ‘동반 타율 4할’을 유지했으나, 김용철은 팀이 50경기를 치르기 전에 타율 4할 대열에서 이탈했다.

2009년에도 로베르토 페타지니(당시 LG 트윈스)와 김현수(당시 두산, 현 LG)가 6월 6일까지 타율 4할 선을 넘었다. 하지만 김현수가 52경기째 4할 아래로 내려갔다.

KIA와 두산은 13일까지 64경기를 치렀다.

64경기째 타율 4할을 유지한 안치홍과 양의지는 역대 KBO리그 최장 기간 타율 4할 공동 6위에 자리하고 있다.



안치홍 양의지

둘은 이제 장효조가 1987년 71경기 타율 4할에 도전한다.

KBO리그에서 시즌 타율을 달성한 유일한 타자는 백인천이다.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MBC 청룡 감독 겸 선수로 뛴 백인천은 타율 0.412로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당시 한국프로야구는 80경기였다.

팀당 144경기를 치르는 올해 ‘시즌 타율 4할’을 기대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경기 수’로 기준을 바꾸면 백인천의 기록을 노려볼만하다.

역대 KBO리그 최장 기간 타율 4할 유지 기록은 이종범이 보유하고 있다. 이종범은 해태 타이거즈에서 뛴 1994년 팀이 104경기를 치를 때까지 4할을 유지했다.

◇ 역대 장기간 타율 4할 유지 *안치홍, 양의지 기록은 6월 13일 현재.

순위	팀	경기 수	연도	선수	당시 소속	시즌 최종 타율
1		104	1994	이종범	해태	0.393
2		89	2012	김태균	한화	0.363
3		80	1982	백인천	MBC	0.412
4		75	2014	이재원	SK	0.337
5		71	1987	장효조	삼성	0.387
*6		64	2018	안치홍	KIA	+0.404
*6		64	2018	양의지	두산	+0.400
8		57	1992	이정훈	빙그레	0.360
8		57	2016	김문호	롯데	0.325
10		56	2009	페타지니	LG	0.332

2위는 김태균(한화 이글스)다. 그는 2012년 89경기까지 타율 4할을 기록했다.

2018시즌에는 두 명이 경쟁하고 있어 더욱 흥미롭다.

안치홍의 타율은 꾸준하다. 시즌 초 타율 0.373을 올리고 4월 19일 부상으로 잠시 이탈했던 안치홍은 5월 1일 복귀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6월 5일 kt전에서 올 시즌 처음 타율 4할에 도달한 그는 9일째 4할 선을 유지 중이다.

양의지는 기록이 없다. 3·4월 타율

0.404의 고공 비행을 벌인 그는 6월 타율 0.432로 타격감을 끌어올리면서 4할에 재진입했다.

양의지는 5월 19일 타율이 0.396으로 떨어졌지만, 13일 만인 6월 1일 타율 0.401로 올라섰다. 10일 다시 타율이 0.394로 내려가자 12일과 13일 7타수 4안타를 몰아치며 시즌 중간 타율 0.400을 기록했다.

안치홍과 양의지 모두 “타율 4할을 의식하지 않는다. 시즌 타율 4할은 불가능한 기록”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13초14’ 정혜림 AG 메달 청신호

KBS배 여자 100m 허들 우승

광주시청 정혜림(31)이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여자 100m 허들에서 대회 타이 기록으로 우승하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 희망을 키웠다.

정혜림은 14일 경상북도 예천 공설 운동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100m 허들 결승에서 13초14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정혜림은 2018시즌 여자 100m 허들 아시아 랭킹 2위다. 그의 올 시즌 최고

기록은 13초11이다.

올해 정혜림보다 빠르게 달린 아시아 선수는 우수이자오(중국·13초08)뿐이다. 우수이자오는 2014년 인천아시아대륙간 게임 여자 100m 허들 금메달리스트다. 2018 아시안게임 여자 100m 허들은 우수이자오를 정혜림, 시무라 히토미, 기무라 아야코(이상 일본), 강야(중국) 등이 추격하는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광주·대구장애인체육회 ‘달빛동맹’

대구 임직원 30여명 광주 방문 친선교류

광주시장애인체육회와 대구시장장애인체육회가 친선교류를 통해 달빛동맹을 강화한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14~15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와 영·호남 동서화합 및 우호증진을 위한 ‘2018 달빛(광주·대구)동맹 친선교류’를 갖는다.

이번 교류는 ‘빛고을’ 광주와 ‘달구벌’ 대구가 맺은 ‘달빛동맹’ 강화의 일환으로 열리는 장애인체육회간 친선교

류로 대구장애인체육회 임직원 30여명이 광주를 찾았다.

광주·대구장애인체육회 임직원 100여명은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배드민턴·탁구 교류전을 갖는다. 양 도시간의 장애인체육인의 상호 이해와 스포츠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은 물론 스포츠를 통한 영·호남 지역주의를 타파, 상생발전과 화합의 시간이다. 또 국립5·18 민주묘지도도 참배할 예정이다.

/최진화 기자